보도자료 Press Release

대구기상대 Daegu Weather Station

배포일시	2013. 9. 17. (화) 10:00 (총 3 매)	보도시점	즉 시		
담당부서	대구기상대	담 당 자	대장 이 명 수	전화번호	053-952-0366

【 절기 기후정보 : 추분 (秋分) 】

□ 추분

○ 추분의 의미

백로(白露)와 한로(寒露)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 추분(秋分)은 양력 9월 23일 무렵, 음력으로는 대개 8월에 든다. 천문학적으로는 태양이 황경 180도의 추분점을 통과하는 때를 말한다.

농사력에서는 추수기에 해당하며 백곡이 풍성한 때이다. 옛 문헌에는 이 시기의 대표적 징후를 `우렛소리가 비로소 그치게 되고, 동면할 벌레가 흙으로 창을 막으며, 땅 위의 물이 마르기 시작한다.' 고 했다. 추분부터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여름철 빈번했던 천둥이 그치는 기상 변화가 오고, 벌레들은 이에 따라 둥지의 입구를 막아 작게 만들어 추위를 예방하며, 점차 건조해 짐을 나타낸다.

○ 추분 시기의 기후는 어떠할까?

추분을 기점으로 낮의 길이가 갈수록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그만큼 길어

지기 시작한다. 또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 진다. 추분(9월 23일)이 속한 9월 하순에는 평균기온은 평년(17~20℃)과 비슷하겠으며, 강수량은 평년(31~57mm)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기상 상식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아 다른 계절에 비해 맑고 고요한 밤이 많은데, 낮에는 태양고도가 높아 기온이 많이 오르지만 밤에는 낮 동안 받은 태양열을 지구 밖으로 내보내는 복사냉각이 강해져 기온이 크게 떨어진다. 이때 지표에 접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되어 물방울로 바뀌는 이슬점 온도까지 하강하면서 안개가 생성되는데 이를 복사안개라고 한다. 대부분 육상에서 가을·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맑은 날씨에, 바람이 약하게 불며, 습도가 높은 날 많이 발생한다. 가을철 내륙으로는 일사에 의해 안개가 소산되기 전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 추분 시기의 식생활과 건강관리

추분을 즈음하여 논밭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그 밖에도 잡다한 가을걷이를 해야 한다. 산채를 따서 가을 햇볕에 잘 말려 호박고지, 시래기 등 마른 나물을 준비하거나, 목화·고추·버섯 등도 따서 말리는 시기이다.

가을에 만들어진 마른 나물과 버섯 등은 1년 내내 먹을 수 있거니와, 그만의 독특한 특성과 효능이 있는데, 버섯의 경우 생것을 말리면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함량이 더 높아지고 풍미도 좋아지게 되어,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도 좋다.

한편, 일교차가 10℃를 넘어서면 면역력이 크게 낮아진다. 오곡백과가 풍부한 수확의 계절인 이때, 비타민이 함유된 과일이나 채소 등을 먹어 건강 관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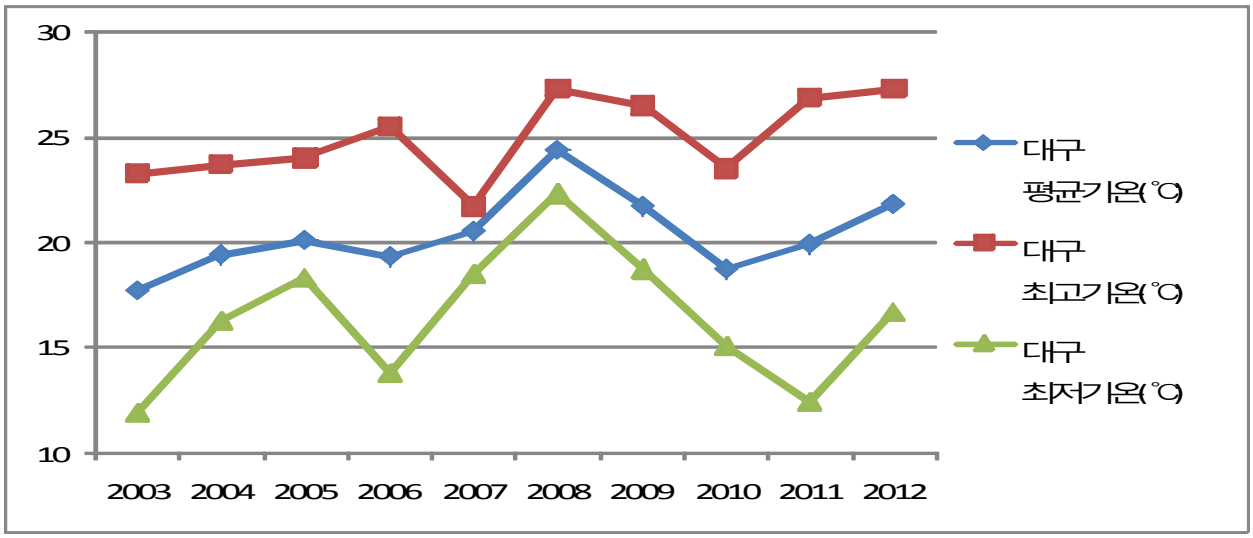
□ 올해 추분(9월 23일)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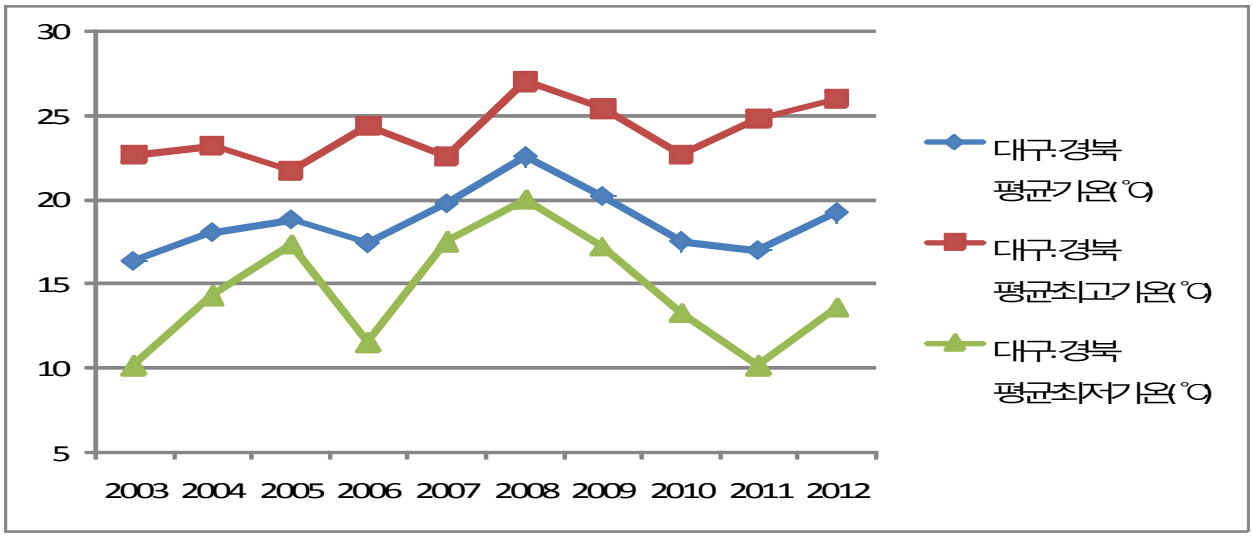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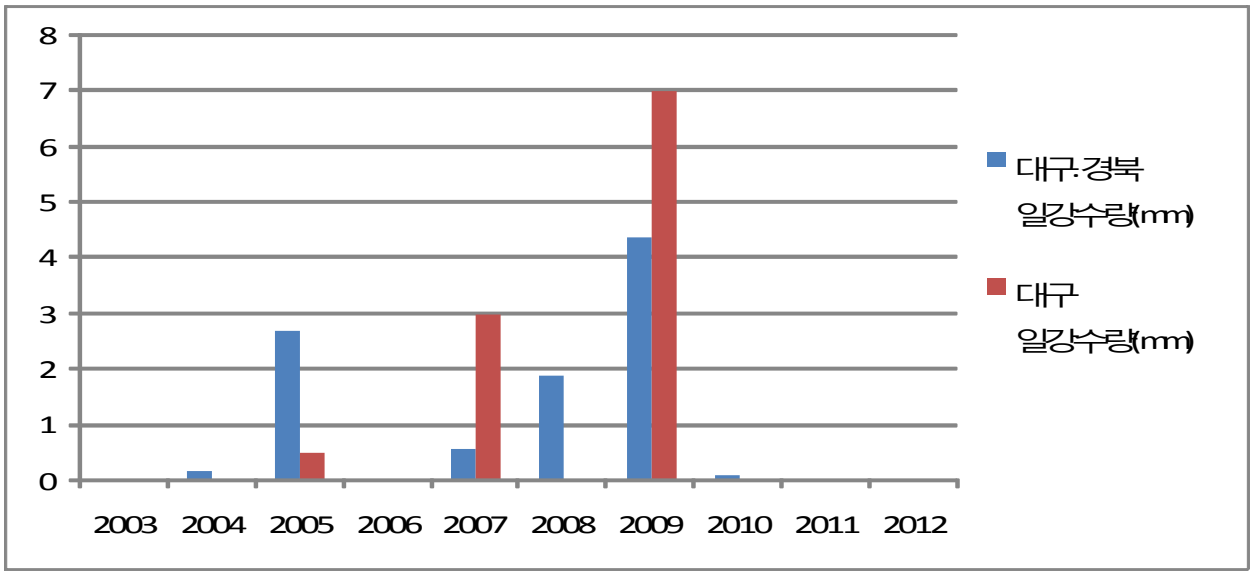
○ 추분인 9월 23일에는 구름많은 날씨가 되겠으며, 아침최저기온은 안동 18℃, 대구 18℃ 분포, 낮 최고기온은 안동 27℃, 대구 28℃ 분포가 예상된다.

○ 바다의 물결은 오전에는 1~3m, 오후에는 1~2m로 일겠다.

□ 최근 10년(2003 ~ 2012)간 추분 때 기온과 강수량

○ 기온변화 경향





○ 일강수량 경향